시간제학생등록제의 개선방향

정 진 환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시간제학생등록제란, 학생이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과 학교를 연결시키고, 교육기관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시간제학생등록제는 학생이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자기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소기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학생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1주일에 한두 시간의 수업 또는 강의를 들어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모든 대학을 평생교육기관화하여 열린학습사회, 평생교육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이러한 취지에 기초한 대학은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이 있는데 이 중 개방대학은 부분적인 시간등록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개방대학과 시간제학생등록제는 그 설립목적이 열린학습사회, 평생교육사회라는 측면에서 같고, 교육대상도 다원적, 이질적, 보편적이라는 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입학자격에서 학위과정이냐 비학위과정이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정원에 있어서도 대학의 사정에 따라 정한다는 면에서는 같다고 하겠다.

두 제도에 차이가 있다면, 시간제학생등록자는 대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모아 학위인정기구(학점은행제)에서 인정을 받고 졸업시험을 거쳐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제학생등록제는 정규의 전일제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모집된 시간제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제학생등록제는 대학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 대한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① 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모든 사람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② 대학은 학습사회 실현의 중심체로서 모든 사람의 앎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③ 대학은 학력 고도화의 가교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현실적응 기제로서 모든 사람의 현실생활을 풍요롭게 해 주어야 한다.
⑤ 대학은 교육복지사회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시간제학생등록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Higher Education For All)의 제공이라는 목표하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다.

① 고등학교 졸업 후 건강 및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제때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업기회를 제공한다.

② 고졸 취업자에게 직업생활 중에도 대학에서의 수학 기회를 제공한다.

③ 고졸 가정주부들에게 대학 수학 기회를 제공한다.

④ 전문대 졸업자에게 학사 학위 취득의 문호를 열어 준다.

⑤ 전일제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유연성과 여유를 제공하며,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시간제학생등록제가 우리 대학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기존 대학체제에 대한 인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될 것이다. 시간제학생등록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대학체제'에서 '수요자 중심 대학체제'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대학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전공과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대학'의 대표적 양태인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먼저 시간제등록생의 지원, 선발 및 등록 인원 수의 연도별 · 학기별 변화 추세를 분석해 보고, 다음에 시간제학생등록제가 대학에 잘 정착이 안 되는 원인 내지는 대학 또는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분석해 봄과 아울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시간제등록생 지원, 선발 및 등록 추세

4년제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모집, 지원 및 선발 상황을 연도별 · 학기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이 표에 나타난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하는 대학의 수는 1998. 1학기 37개교에서 동년 2학기에 52개교로 증가한 후에, 연도 · 학기별로 다소의 증감이 있었으나 40개교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2002. 1학기에는 60개교, 2002. 2학기에는 49개교였다.

② 모집 인원 수는 1998. 1학기에 5855명에서 동년 2학기에 10,485명으로 증가한 후에 IMF 직후인 1999. 1학기에 8389명으로 감소하였다가 동년 2학기에 30,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1학기부터는 다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 2학기에는 25,000여 명이었다.

③ 지원 인원 수는 1998. 1학기 1676명으로 출발한 뒤에, 동년 2학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 2학기까지 1000여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 1학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 1학기에는 3000여 명에 달했으나 2002. 2학기에는 1500명으로 감소하였다.

④ 선발 인원 수는 1998. 1학기 1111명으로 출발한 뒤에, 동년 2학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700~8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 1학기에 1401명으로 증가한 후에 계속 증가하여 2002. 1학기에는 2788명에 달했으나 2002. 2학기에는 1424명으로 감소하였다.

⑤ 연도별 · 학기별 경쟁률(지원 인원 수/모집 인원수)은 최고 0.29 : 1, 최저 0.03 : 1 로서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⑥ 연도별 · 학기별 선발 비율(선발 인원 수/지원 인원 수)은 최고 94.2%, 최저 66.3%로서 높

〈표 1〉 시간제등록생 모집, 지원 및 선발 상황 (4년제 대학) (단위: 명)

학기별	학교 수	모집 인원 (A)	지원 인원 (B)	선발 인원 (C)	경쟁률 (B/A)	선발 비율 (C/B)	비고
1998. 1학기	37	5855	1676	1111	0.29	66.3%	
1998. 2학기	52	10,485	1101	787	0.10	71.5%	
1999. 1학기	47	8389	911	697	0.11	76.5%	
1999. 2학기	45	29,365	1007	861	0.03	85.5%	
2000. 1학기	57	30,826	1636	1401	0.05	85.6%	
2000. 2학기	40	20,035	1000	880	0.05	88.0%	
2001. 1학기	54	29,602	2063	1735	0.07	84.1%	
2001. 2학기	50	29,192	2448	2287	0.08	93.4%	
2002. 1학기	60	27,859	2961	2788	0.11	94.2%	
2002. 2학기	49	25,355	1521	1424	0.06	93.6%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3. 2

〈표 2〉 전문대학 시간제등록생 수 (단위 : 명)

학기 / 연도	1학기	2학기	합계
1997학년도	491	397	888
1998학년도	840	587	1427
1999학년도	443	835	1278
2000학년도	742	1086	1828
2001학년도	891	716	1607
2002학년도	750	661	1411
합 계	4157	4282	843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3. 2.

은 편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선발 비율이 1998. 1학기 66.3%이던 것이 점차 높아져서 1999. 2학기 이후부터는 85% 이상을 유지했으며, 2001. 2학기 이후부터는 90% 이상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를 연도별 · 학기별 집계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리고 이 표에 나타난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등록생 수는 1997학년도 888명에서 1998학년도에 1427명으로 증가한 후에 2000학년도에는 1828명에 달했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여 2002학년도에는 1411명이었다.

② 1학기의 등록생 수와 2학기의 등록생 수를 비교해 보면 매년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소 관계의 방향에 있어서의 어떠한 규칙성은 발견할 수 없으며, 6개 학년도 등록생 수 합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Ⅲ. 시간제학생등록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다음은 필자가 직접 만난 시간제등록생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내용이다. 이 편지를 보면 시간제등록 학생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시간제학생등록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저는 1997년 가을학기부터 시간제학생으로 입학하여 2003년 봄학기까지 만 6년 동안 전공 39학점, 교양 자유선택 56학점 등 총 95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마흔 살의 직장인입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시간제학생을 유치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학생 선발시에 교수님과의 직접면접도 있었고 학생 수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99년도에는 K대의 학생증도 발급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선발과 형식적인 운영, 그리고 입학상담실의 담당자도 자주 바뀌어 유명무실한 제도에 대해 정확한 상담도 하지 못하고 학사지원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교수님이 없는 터라 혼자서 아무 잣대 없이 정진해 나가야 하는 학업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 봄학기부터는 전공교수님들의 재학생 우선 강의로 수업신청도 불가능해졌습니다. 2001년 봄학기까지는 제가 전공하는 경영학과의 졸업학점을 120학점으로 고시하고, 80학점 또는 85학점 이상을 K대에서 이수할 때에는 K대의 학위수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2003년 모집요강에서는 시간제등록생이나 학점은행제에 의해 수료인정학점을 취득한 자는 편입학 지원 자격만이 부여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측(입학상담실, 학사지원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지만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제 학생으로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렇게 시류에 따라 변하는 듯한 대학행정의 일관성 부족이라고 사료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으로도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대학총장님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도 있지만 이는 학칙에 따르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이나 등록하는 입장에서 학칙을 검토하는 학생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학교의 설명이나 고시하는 내용을 믿고 대부분 학교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측의 이수학점은 140학점입니다. 20학점이면 지금처럼 한 과목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계산할 때 7학기, 즉 만 3년 이상을 더 다녀야만 합니다. 저의 경우엔 앞으로 7년, 약 13년이 소요되는 기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전직 신설은행에 근무하면서 힘겹게 학업을 이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주 3일씩 8시 20분 시작하는 야간수업을 지키려고 먼 지점에서 6시 이전에 퇴근하기도 하였고, 부산 RM팀에 근무할 때에는 경부선 열차로 왕복하며 수업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상행, 다음 날 새벽에 하행하는 곤한 행로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향학열은 본점에 보고되어 근태불량으로 인사경고 조치를 당하기도 하였고, IMF 때에는 명예퇴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라도 공부를 포기하지 못한 것은 좀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소박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배움에 대한 한의 골이 깊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깊은 학문을 연마하고 싶습니다. 소박한 욕심은 자기만족, 자아실현을 위한 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간제학생의 서신을 바탕으로 시간제학생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그것이 대학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제학생의 선발, 등록, 신청, 입학자격, 입학방법, 신분변경, 학위수여과정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적인 홍보가 지극히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대학 당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시간제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간제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가 거의 부재하다고 하겠다. 또 선발한 시간제학생에 대한 지도체제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시간제학생에 대한 지도교수도 배정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학생증 발급도 되지 않고 있어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에도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간제학생의 선발, 관리기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선발실 및 학사지원실 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해 시간제학생등록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직원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간제학생의 문의에 대한 상담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간제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호의적 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교수들은 시간제학생이 수강신청을 하면 학부학생 우선의 수강신청이라는 명목하에 시간제학생의 수강신청을 기꺼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교수들의 학생 성적 상대평가에 대한 부담에서 빚어지는 결과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제학생에 대해서는 예외로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면 곧 해소될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강의실이 기존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한 실정에서 초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교수들이 과밀규모의 대학 강좌를 거부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도 할 여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시간제학생등록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것을 대학에 잘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시간제학생등록제 관리기구를 조속히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관리기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정대학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본부에 '시간제학생등록 지원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동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상근 상담원(counselor)을 배치하여 각종 상담 서비스의 제공
② 학습보조자료실의 운영 및 시간제학생의 과제작성 등에 대한 도움
③ 시간제학생에게 활동의 장 마련 제공
④ 뉴스레터의 발간 및 관련정보의 제공
⑤ 시간제학생등록제 관련 정책연구 수행
⑥ 각종 홍보업무의 수행

다음에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 대학은 시간제학생등록제 전담관리 부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대학의 실정에 따라 입학관리과, 학사지원실, 학생복지실 등 적절한 곳에 분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 부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① 시간제학생등록 시행 계획 수립
② 시간제학생등록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③ 시간제학생등록 시행 절차의 집행·관리
④ 시간제학생의 상호연결, 활동의 장 마련 등

"

정부 및 대학은 시간제학생등록제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이제부터
새롭고도 견고히 다져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Ⅳ. 맺는 말

현재 시간제학생등록제 실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25세 이상 대학 미진학 성인 학습자 총량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약 2000만 명 선으로 추정된다. 다만, 1998년 IMF의 경제대란과 최근의 이라크전쟁 및 북한의 핵 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민의 시간제학생등록에 대한 욕구가 저하되고 있어 4년제 대학에 1400여명과 전문대학에 1400여명만이 시간제학생으로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앞으로 호전된다면 시간제학생등록의 인구 규모는 방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 및 대학은 시간제학생등록제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이제부터 새롭고도 견고히 다져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진환

공주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교육행정 전공)를 취득하였다. 현재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대학원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대학교직원 정원관리에 관한 연구," "대학등록금 책정방법 개혁 연구," "시간제학생등록제 도입방안 연구" 등이 있다.